

1. 집을 크게 그리는 경우는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책임감이 강한 경향이 있다.
 2. 집의 위치가 전체 면적의 중앙에 위치할수록 사람 관계가 원만하며 사회성은 경향이 있다.
 3. 굴뚝이 없으면 창의적이거나 호기심이 많고, 야심이 있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있다.
 4. 창문이 없으면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며 의심이 많고, 대인기피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
 5. 창문을 3개 이상 그리면 우호적이며 대인관계에 적극적이다. 또한 야심이 있고 목표지향적이며 자극을 추구할수록 창문을 3개 이상 그리는 경향이 있다.
 6. 즉, 창문의 개수가 많을수록 비교적 계획성있고 사람관계에서 우호적인 성향이 높다.
 7. 창문을 크게 그리면 호기심이 많으며, 야심이 있고 목표지향적인 경향이 있다.
 8. 창문 크기가 보통이면 수용적이며 신뢰를 잘하는 경향이 있다.
 9. 즉, 창문 크기가 작을수록 수용적이며 내성적일 확률이 높다.
 10. 울타리가 없으면 배려심이 깊고 관용적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울타리를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11. 울타리가 있으면 원기 왕성하고 신체활동이 많은 경향이 있다.
 12. 자기주장이 강하고 과시적인 성향일수록, 자신감이 클수록 나무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13. 너그럽고 공감을 잘할수록 꽃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14. 우울이 심할수록, 반사회성 성향이 강할수록 해(태양)를 그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15.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할수록 해(태양)를 그리는 경향이 강하다.
 16. 배려심이 깊고 관용적일수록 연못을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17. 원기왕성하고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연못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18.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클수록 여백에 잔디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
19. 그림의 위치가 위쪽에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불확실하며,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나,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하려는 것을 나타냄. 혹은 낙천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20. 그림 위치가 아래에 있는 것은 자신이 현실적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패배감, 불안감, 위화감을 가지고 그 때문에 우울한 기분에 빠져있거나 구체적인 것에 몸을 의지해 안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21. 그림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거나 너무 작은 그림을 왼쪽이나 오른쪽 위에 그리는 것은 부적응을 의미한다.
 22. 전체 공간에 비해 그림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일반적으로 부적절감을 나타낸다.
 23. 공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거나, 크기 때문에 종이의 절단면에서 그림이 잘려나간다면 환경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24. 그림이 왼쪽 가장자리에 있을 경우 미래로 도피하고 싶은 바람을 나타낸다.
 25. 종이의 양쪽 끝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수록 불안전감과 위축을 의미한다.
 26. 아래쪽 끝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수록 우울 의미한다.